

BASF, Toray와 PBT 6만톤 합작

60대40 합작으로 말레이에 건설 ... BDO 10만톤 플랜트가 원료 공급

BASF와 일본 Toray Industries가 합작으로 말레이시아의 Kuantan에 PBT(Polybutylene Terephthalate) 6만톤 플랜트를 건설기로 합의했다.

PBT 플랜트는 BASF와 말레이 Petronas가 60대40으로 합작한 BASF Petronas Chemicals이 최근 완공한 BDO(Butanediol) 10만톤 플랜트의 다운스트림으로 건설되는 것이다.

PBT 플랜트는 양사가 50대50 합작으로 Toray BASF PBT가 4000만달러를 투자해 건설하며, 기술은 Toray의 Polymerization 프로세스를 채용한다. 또 2006년 초 완공 예정이며, 건설은 Toray Engineering과 말레이의 Rosek이 담당한다.

BASF는 GE Plastics과 합작으로 BASF GE Schwarzheide를 설립해 독일 Schwarzheide 소재 PBT 8만톤 플랜트를 가동하고 있으며, Toray는 일본 Ehime 소재 PBT 플랜트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BASF Petronas는 3월1일 가동한 BDO 10만톤 플랜트의 가동률을 50% 이하로 감축할 방침이다. 세계 BDO 수요가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부족물량은 BASF의 다른 BDO 플랜트 생산제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BASF는 BDO 총 생산능력이 57만5000톤으로 세계 최대의 생산기업이다.

<화학저널 2004/04/23>